

18세기 실학의 거두 박지원, 영화배우 이은주와 장국영, 쇼팽, 고갱, 린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이다. 몇몇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국가중 4위였는데, 2006년에는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였다. 자살자의 70~80%는 우울증 증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우울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생의 4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다. 최근에는 우울증과 자살에 관한 보도가 연일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흔히들 '우울증은 감기와 같다'라는 비유를 하곤 한다. 이 말이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면 적절할 수 있지만,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매우 위험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감기로는 생을 마감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우울증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이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자기 혐오와 무가치함, 절망감,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자살충동 등이다. 모든 생명체의 본질인 생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상한 병이 우울증만큼 위험하고 파괴적인 질병이 또 있을까.



불자 세상보기

김연옥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울한 사람 우울한 사회

우울증은 흔히 신체적 질환이므로 약물치료를 하면 완쾌된다고들 한다. 신경전달물질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병이며 사회적 질병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몸과 마음이 별개라 아나기에, 실직, 이혼, 입시낙방 등 갖가지 스트레스가 신체의 화학적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사회적 상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질병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우울증과 자살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취업난, 입시지옥, 부의 양극

화, 고용불안정 등의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아마 우리 사회만큼 스트레스와 긴장이 높은 사회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울증이 있었던 노인이 '아파트 가격은 뛰어나, 나도 댄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은 우울증과 자살로 인해 매년 발생

하는 6조원이 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더욱욱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개입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일천하다. 선진 국가들이 이미 60, 70년대에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규정한 정신보건법을 제정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5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고, 이 또한 1997년의 IMF위기로 인해 그 실천이 지연되었으며,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조차 2001년에 와서야 처음 실시되었을 정도이다. 가장 일선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가 2006년 현재 전국에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는 이 센터를 2008년까지 246개소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대로 시설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울증과 관련하여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주로 알콜중독, 정신분열증 등 타 인공격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질환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상 자체가 '중요'하고 자기공격적인 우울증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울증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지역사회 깊숙이에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약물치료, 심리상담 등 치료개입의 다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어린이 포교 단체인 (사)동원어린이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1986년 어린이 법회 지도자를 교육하는 불교사대학을 설립하고, 1990년부터는 어린이 불교 잡지인 월간 <동원> 10만 권을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동원 어린이 '논부신' 성취가 사실은 '눈물겨운' 결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20년 간 한국 불교는 적어도 어린이 불교에 대해서만큼은 침체일로였다. 어린이 법회의 감소가 그것을 말해 준다. 이에 대한 각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일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아이들도 경쟁의 장에 흡수되어 버렸다. 아이들은 '학원'으로 달려가고 '컴퓨터'에 매달렸다. 사찰은 이런 아이들을 흡수할 동력을 잃어 버렸다.

어린이포교 '골목 넓히기' 20년

임버릇처럼 '위기'와 '침체'를 말할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 포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한다.

첫째, 앞으로 어린이 법회는 '골목' 문화의 현대판이어야 한다. 1학년과 6학년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봄·가을에는 '아이활동'이나 '생태체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들의 빈 곳을 채워줘야 한다. 대학생·청년회·신도 조직과 연계하여 '특기·직성' 계발이나 '글쓰기·논술' 지도를 통해 부모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셋째, 도시 사찰이나 지역의 중심 사찰은 사회봉사의 차원에서라도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운영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 찾아가는 어린이 포교를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포교의 질적 향상은 원력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고 본다.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이 시대의 가장 고통 받는 중층이다. 하. 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차원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윤재학(이동문학가)

이렇게 들었다

효도

마땅히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여 존중해 섬겨서 신(神)인 듯 받드는 생각을 지녀야 하며, 부모의 생각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면서도 아첨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보리자랑론>

'효도 계약서' '효테크'. 생전 들도 보도 못한 소리들이 들려온다.

장남에게 50평대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형제 간에 재산다툼이 나면 재산 증여를 무효화하며, 증여기간 이자까지 덧붙여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 아버지. 강남 아파트 명의를 바꿔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결혼 5년만에 아이 낳을 마음을 품은 30대 며느리.

이런 사회에 발맞춰 일부 금융권에서는 효도 계약서와 관련한 고액 컨설팅을 시작했다고 한다. 가족 간의 정이 메달려서라기보다 재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효테크'라는 설명이다.

아무리 효율적인 재산 관리법이라고는 하지만 '계약서'를 써야 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효도는 조건이 되어 버린 듯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부처님은 "부모가 있으므로 우주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이 있으며,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 이 모두가 부모의 은혜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지성으로 봉양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가를 잘 전도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해야 한다"고 <삼세인과경>을 통해 말씀했다.

돈에 눈이 어두운 이 시대 부모 자식 사이의 자화상은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일까. 조건부 효도 후 행진 재산이 얼마나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를 하자.

■김지연(현재부 기자)

특별기고

수목장,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나?

수목장, 말도 참 많다. 실상 말이 많다는 게, 우연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문제이다. 한 문화권이나 사회에서, 돌아가신 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장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지거나 도입되어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수목장에 대한 담론이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장법인 양 회화되기도 한다. 물론 여러 면에서 이상적이다. 문제는 이상적인 만큼 현실성에 대한 검증, 즉 많은 국민들이 수목장을 쉽게 받아 들일 것이며 행어나 또 다른 폐단을 만들어 내지는

않겠는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선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것도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처음엔 이상적이었지만 나중엔 여러 폐단을 양산해 오며 시행하지 않은 것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화장 후 납골방식의 하나로 제도화해 시행한 납골묘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비근한 예이다. 최근의 수목장에 관한 성급함이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리라 믿는다. 거듭, 장법 즉 죽은 자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는 그 사회 전체 구조와 문화적 맥락에 맞게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고 시행

되어야 한다. 이웃 어느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아니면 환경이나 비용, 편리성, 위생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 문화체계에 사회구조에도 잘 맞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수목장은 좋은 장법임에는 틀림없다. 자연회귀라는 본래의 우리 전통장법과도 부합하며 비교적 깔끔하게 무(柩)로 환원한다는 데서 불교 교리에도 여러 면에서 합치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목장에 대한 논의나 개정 추진 중인 장

법안이 지나치게 친환경성과 경제성, 편리성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나 경제적인 요소만 고려한다면 굳이 수목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돌아가시면 화장이나 방장(火藏)해서 곧바로 직 접한 시설에 뿌려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묘지는 묘지이어야 한다. 고인은 고인으로서 일정기간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후손은 고인을 기억하고 추도할 장소와 대상을 가져야 한다. 후손을 통해 영생과 불멸성을 추구하는 게 우리 전통 장례문화의 본질이며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고 있는 기층문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수목장도 무엇보다 첫째로 묘지라는 문화적 제도로 다루어지고 준비



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폐단을 최소화해야 된다. 국민들이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본래의 묘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묘지는 고인의 표시 기능과 고인의 불멸성에 대한 담보를 통해 살아생전 죽음이란 궁극성이 주는 두려움과 무의미성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역동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묘지로서의 표시기능과 후손들의 참배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폐단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되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이 정교하고 세세할수록 오히려 탈법 등의 폐단은 늘어나게 된다. 법은 큰 틀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정 추진 중인 장사법이 통상 최적의 수목장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과 관리의 주체가 잘 기능할 수 있는 사찰 등도 별도의 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을 설치하여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수목장 활성화에 가로막거나 관리주체가 모호한 수목장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에 재고되어야 한다.

강동구(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겸임교수)

장단점 충분히 검토해 우리문화에 맞춰야

'연대' 민명 심민섭

한번 넓게 뛰어보세요

전통따주가지도사 강좌 (2박3일) 안내

-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제 세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낚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약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가지도사로 활동
-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 강좌 일**
 - 2006년 11월 30일 ~ 12월 2일
-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사혈기 및 필수 부항·펌프 보시
-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먹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지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지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지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지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